

지역 소식통

부안군, 미실축제 축제기간 중 바가지요금 점검반 편성

부안군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됐던 부안미실축제 기간 중에 물가안정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

군에 따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물가종합상황실에서 축제기간 중 점검 분야를 물가, 안전, 위생 등으로 나누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바가지요금을 원천봉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

특히 축제 방문객들에게 만족도와 신뢰도 높은 축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입점 부스 모집부터 판매음식, 가격 등 정보를 미리 제출하도록 해 협의하지 않은 메뉴나 바가지 요금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농식품기업 지원 사업 사후관리 점검 추진

정읍시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을 받은 35개소 업체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건물·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 내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부서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한 목적 외 사용여부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 등 준수 여부 등이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건전한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한발짝'

정읍시, 아일랜드 코크시와 '혁명도시' 교류 협약 체결

정읍시가 아일랜드 독립투쟁의 중심 도시인 코크(Cork)시와 '혁명도시'로서 공식적인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다.

시는 9일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사전 행사로 정읍시청에서 열린 도시 간 시장단 회의를 통해 아일랜드 코크시와 공식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코크시의 시장 키아란 맥카시(Clr. Kieran McCarthy)와 시립박물관장 다니엘 브린(Daniel Breen), 시의회 수석 사무총장인 앤 도허티(Ann Doherty) 등 코크시의 핵심 인사들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2022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결실 가운데 하나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동학농민혁명과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는 도시들과 연대를 모색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미래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시와 코크시는 각각 시립박물관을 협약의 주체로 세워 양 도시의 교류가 문화유산의 보전과 역사적 기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두 도시는 협약을 통해 양 도시 간의 관계와 우정을 더욱 강화하며, 역사적 투쟁을 존중하며 생기를 불어넣는 한편,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행동을 기념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규정했다. 이후 공동학술행사, 정기적인 민간 차원의 교류, 박물관의 상호방문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독일의 필하우젠과도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기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시는



정읍시가 시는 9일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사전 행사로 아일랜드 독립투쟁의 중심도시인 코크(Cork)시와 '혁명도시'로서 공식적인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다.

독일에 대표단을 파견해 요하네스 브룬스(Dr. Johannes Bruns) 필하우젠 시장과 공식회의를 갖고 도시 간 교류협력력을 위한 MOU를 맺은 바 있다. 특히 필하우젠은 내년도 독일농민전쟁 5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연대회의에 참석한 수잔 키미크 빌크너 박물관장(Dr. Susanne Kimmig-Volkner)은 독일농민전쟁 500주년 기념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학수 시장과의 공식 회의에서 농민전쟁 500주년 기념행사에 정읍시의 대표단 방문을 요청했다. 시는 필하우젠의 이러한 요청을 적극 검토해 내년에 개최할 제4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공동개최 또는 필하우젠 대표단 파견을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시는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의 마르코스 토레스 리마(Marcos Torres Lima) 시장과 필리핀 칼라바를

대표한 데라살 대학교의 레네 에스칼란테 교수(Rene R. Escalante)등 과도 공식회의를 진행했다.

알타그라시아는 체 게바라가 청소년기를 보낸 도시로 이곳에 체 게바라가 당시 살았던 고택이 보존돼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칼라바는 농민혁명 지도자이자 필리핀의 국부로 불리는 호세 리잘이 태어난 도시로 이번 대회에 처음 참여했다.

알타그라시아는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회원 도시로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며, 칼라바는 향후 상호 방문을 통해 역사·문화 뿐만 아니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읍시는 9일 4개 도시와 연속으로 시장단 회의를 갖고 도시간의 이슈를 정리했으며 10일에는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본 행사인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 '순항'

고창군, 청년 모임 5곳 활동비 지원... 근로청년·창업 꿈나무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역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지원사업'에 지역 청년 모임 5곳을 확정했다. 선정된 단체는 청년 교류 활동, 취·창업 준비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등 동아리 운영을 위한 예산 2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청년들의 다채로운 활동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목돈 마련에도 적극 돕고 있다. 고창군은 근로 청년 지원책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에 49명이 참여하고 있다.

본인 납입금(1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적금 상품인 '청년 함께 두배 적금' 사업에도 20명의 청년들이 지원받고 있다.

또한 '청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역시 최종 5개팀을 일찍 확정했다.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 창업 패키지는

시제품 개발 비용 등 1500만원(1년차)과 초기자금 5000만원(2년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든든한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40명의 관내 청년들이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어학시험과 자격증 공부, 면접 교통비 등에 알차게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 '전북 청년 마을 만들기'와 '전북 청년 생활 아이디어 사업'에 고창군 청년 단체가 연달아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도 거뒀다.

청년 지도(대표 김진욱)는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모양성 마을 일원에 체류형 관광 및 로컬을 사는 팝업 스토어 등 청년 사는 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활력 넘치는 청년 마을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원더청년(대표 염계연)은 최근 불거지는 세대 간의 갈등에 포인트를 맞추어 세대 융합과 상생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및 재능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발품행정 구슬땀

권익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수는 지난 8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품행정을 펼쳤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환경부 정책기획관, 수질수생태과, 토양지하수과, 문체부 전통문화과 등을 방문해 △우분 고형연료화시설 설치사업(356억) △우분 깊은금 지하수 저류법 설치사업(76억) △부안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2억)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198억) △부안 백산성지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206억)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우분 고형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 및 부안군 수질오염총



량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하여 가축분뇨(우분)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우분 깊은금 지하저류법 설치사업의 경우, 섬지역의 특성상 가뭄에 취약한 위도 저수지의 안정적인 수원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대응 전략회의' 개최

심덕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수가 '2025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대응 전략회의'를 열었다. 심 군수는 오전부터 고창군 부서장들과 함께 일제 출장을 나가 중앙부처 공무원을 방문했다.

먼저, 심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과장 조은지)을 찾아 총사업비 360억원 규모의 △'쌀 소재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심 군수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안세창 국토정책관과 면담을 진행하며 총사업비100억원 규모의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와 2단계 사업'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서해안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구시포항과 명사십리 일원에 야간경관시설과 휴게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끝으로 행안부를 방문한 심 군수는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 진선주 교부성과장을 만나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지역 현안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고창군은 한빛원전과 직접 경계를 맞대고 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을 설명하며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지역 방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정읍시 보건소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매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 습관, 의료 이용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통계조사다. 올해는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등을 포함한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